

새정치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최종 확정

9곳 경선 마무리...단수 추천 5곳 포함 14명 선정

일부 탈락후보 지지자 항의...한때 험악한 상황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기초단체장 14곳의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김진진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개 선거구별로 최종 경선에 오른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익산 이한수(53.8%), 정읍 김생기(56.4%), 김제 박준배(58%), 진안 이명노(58.4%), 순창 황숙주(73.9%)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

장수 장영수(52.4%), 부안 이병학(58.1%), 군산 문동신(52.4%), 완주 국영석(54.8%) 후보도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 후보로 결정됐다.

이로써 단수 추천된 전주와 남원·부안·고창·무주 등 5곳을 포함한 총 14곳

의 시장·군수 후보 선출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명단 발표 현장에서는 일부 탈락 후보 지지자들이 "불공정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칠게 항의하다가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역선택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보여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된 후보는 이날 전북도당에서 공천장을 받은 뒤 15~16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북기초단체장 후보

선거구	성명	나이	대표경력
전주	김승수	45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군산	문동신	76	군산시장
익산	이한수	53	익산시장
정읍	김생기	67	정읍시장
남원	이한주	53	남원시장
김제	박준배	58	전 전북도 새만금 개발국장
완주	국영석	51	전 전북도의회 의원
진안	이명노	57	전 새만금·군산 경제청장
무주	황정수	59	전 전북도의회 의원
장수	장영수	46	전 전북도의회 의원
임실	김택성	47	전 전북도의회 의원
순창	황숙주	66	순창군수
고창	박우정	69	기업인
부안	이병학	57	전 부안군수

이와 함께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북 유권자는 총 150만 364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북도는 14일 "이번 도지사·교육감·도의원·시장·군수·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유권자는 남자 74만440명, 여자 76만

3200명 등 총 150만364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북 인구의 80.26%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지난 제5회 지방선거(144만 2805명)에 비해서는 6만835명이 늘었다.

선거인 수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로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증가하고 외국인 유권자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8%로 가장 많았고, 40대(20%), 50대(19.3%), 30대(16.2%), 20대(14.4%) 19세(1.75%)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14개 시·군별 유권자 수는 다음과 같다. ▲전주시 50만5482명 ▲익산시 24만4189명 ▲군산시 22만867명 ▲정읍시 9만6999명 ▲김제시 7만7357명 ▲완주군 7만685명 ▲남원시 7만427명 ▲고창군 5만1209명 ▲부안군 4만9622명 ▲임실군 2만6111명 ▲순창군 2만5509명 ▲진안군 2만3296명 ▲무주군 2만1797명 ▲장수군 2만90명 /연합뉴스

목포시향 파국 사태 '극적 해결'

시, 단원 27명 해고 철회

노조, 고소·고발 등 취하

8개월 동안 파행을 겪었던 목포 시립 교향악단(이하 목포시향)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목포시는 "14일 오후 2시 목포시를 대표해서 김치중 교육문화사업단장과 노조를 대표한 최영일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광주·전남지부장, 목포시향 합인호 지부장과 김범규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목포시향 정상화 합의서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승인이 떨어지면 합의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된 합의서에 따르면 시는 목포시향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시와 조합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모든 외부 민원(고소·고발·징정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시는 목포시향 운영예산 5억6000여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시향

노조는 추경예산 확보 시까지 정상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시와 노조는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합의서 체결 시까지 발생한 시향 단원의 파행 분규 등을 책임으로 짐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차원의 대시민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고, 비노조원과 화합분규기를 조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의회가 목포시향 체질개선 등을 이유로 당초 올해 예산 13억7000만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5000여만원을 삭감하자 시향 단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시가 지난 2월 25일 단원 64명 가운데 27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통보한 후 4월 24일 해고조치를 단행하자 시향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인구 24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인 목포시는 현재 6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고창 상하농원 테마공원 조성으로 일자리 400개 창출

농식품부-매일유업 상생 협약

관광인구 100만명 유입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 기업이 고창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 조성에 나선다.

매일유업(대표 김정완)과 농식품부는 14일 고창군 상하농원 상하농원 육성목적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와 매일유업은 상하농원 매일유업 유제품 생산공장 인근에 10ha 규모의 '상하 농원 테마공원'을 조성해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모델 제시 ▲건강한 한국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 개발 보급 ▲친환경 유기농·축산업 발전 방향 제시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매일유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고창지역에 100만명 이상 관광인구 신규 유입 효과와 4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농·축·수산물 등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일유업은 지역 농·축산물 구매량을 지난해 2만2479t에서 2018년까지 23만5267t으로 9.5배 확대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농



농림축산식품부와 매일유업은 14일 고창군 매일유업 상하농원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중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순정열 한국농축육협회 회장, 이동필 장관,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농식품부 제공>

업·농촌의 6차 산업화 모델인 '상하 농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6차 산업'은 농·수산업(1차 산업), 제조업(2차 산업), 서비스업(3차 산업)이 복합된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의미한다. '상하 농원'은 유제품 공방을 비롯해 햄, 빵 공방 및 복분자 등 과일공방, 된장·고추장의 장류공방 등으로 고창 고유의 특성을 살릴 계획이다.

매일유업은 조제분유와 신선우유, 커피·음료제품 등 농식품 해외수출을 위해

536억에서 2018년까지 2300억으로 3.3배 늘린다. 또 농식품부와 함께 외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과 '케이 푸드'(K-Food)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유기농 목장체험 등 연간 32만명 교육 기구=매일유업은 유지원생과 청소년,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실현과 국산 농·축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매일유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연 그대로의 순환 방식인 유기원유→유기분뇨→유기퇴비→토양의 유기화→유기사료→유기원유(原乳)라는 '상하목장 유기(organic) 서클' 운영을 확대하고, 2018년까지 유기농·축산물 제품 매출을 2배 확대하는 등 유기농·축산물 시장 성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해남 돼지농장, 전국 첫 동물복지 인증

농축산검역본부 심사 통과

가축에게 쾌적 환경 제공

해남군 돼지농장 '감산 이야기'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를 통과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돼지농장 인증을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진하는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 복지 인증 기준을 근거로 해 사육시설, 사육환경, 관리자 의무 등 세부사항을 평가하고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동물 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으려면 사육 공간은 휴식공간을 포함해 비육돈 기준 마리당 1.66㎡ 유 지(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 있는 경우 1.3㎡)해야 한다.

꼬리 자르거나 송곳니 뽑기 및 전기봉 사용을 금지하고, 쇠울타리 사육을 제한해 무리(집단) 사육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분만실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

확보해 가축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하게,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 돼지농장 인증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 농가가 없을 정도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 축산 분야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최초로 2011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 운동장 확보 등 기준에 적합한 농장을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왔다.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은 총 23개 소(한우 11, 젖소 3, 돼지 3, 닭 4, 흑염소 2)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남 '감산이야기' 농장처럼 전남 전체의 자연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기존 축산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d@

죽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원타, 주스)

죽석요리 알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